

걸 파워 의상에 표현된 3세대 페미니즘 여성성

김주영* · 양숙희

숙명여자 대학교 의류학과 박사졸업* · 숙명여자 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학문적 논의를 중심으로 했던 1, 2세대 페미니즘에 비해, 현대의 젊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주장되고 실행되는 3세대 페미니즘은 젊은 여성들의 분노와 쾌락을 표출하고 있으며, 특히 걸 파워는 개인주의, 독립성, 적극적 섹슈얼리티 등을 통해 여성 권력을 주장한다.

본 연구는 3세대 페미니즘을 성(도덕), 문화, 인종, 공간, 성적 소수자 관점에서 파워 페미니즘, 포스트핑크 페미니즘, 3세계 페미니즘, 사이버페미니즘, 퀴어 페미니즘으로 분류하고, 3세대 페미니즘을 표현하는 매체로 대중음악의 걸 파워를 선정하여, 걸 파워 의상에 표현된 여성성과 그 미적 특성을 연구했다.

3세대 페미니즘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워 페미니즘은 서구 자본주의적 개인주의에 기초하여 성적으로 대상화된 전형적 여성성과 프로섹시즘을 통해 백인 중산층 여성의 성적 권력과 여성주체성을 제시한다. 둘째, 포스트핑크 페미니즘은 라이엇 걸을 중심으로 DIY철학, 모순성, 분노 등을 통해 남성 중심적 록 형태와 전통적 미적 개념에 도전한다. 셋째, 3세계 페미니즘은 백인 페미니즘에 대항하여 성장하였으며, 다문화적, 반인종주의적 관점의 혼성을 특성으로 한다. 넷째, 사이버페미니즘은 인간/동물, 인간/기계, 인간/물질, 현실/허구의 결합을 통해 가상현실의 사이보그와 뱀파이어의 가상성을 특성으로 한다. 다섯째, 퀴어 페미니즘은 젠더 개념의 수행성, 가면극, 캠프미학 등의 비고정적인 젠더 유희적 정체성과 가장적 여성성을 주장한다.

걸 파워 의상에 표현된 3세대 페미니즘 여성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워 페미니즘 여성성은 Madonna, Spice Girls 등을 중심으로, 서구 백인의 성적 대상성으로 나타난다. 란제리룩, 글래머러스룩 등을 통해 처녀/창녀, 굳결/배드걸, 정숙성/비정숙성의 이분법을 해체하고, 관능미, 양성미, 퇴폐미 등으로 나타난다.

둘째, 포스트핑크 페미니즘 여성성은 강건성, 퇴폐성, 모순성으로 나타난다. 강건성은 Patti Smith, Chrissie Hynde 등의 쿨(cool) 태도와 매니쉬룩, 터

프걸룩, 앤드로지너스룩 등을 통해 양성미와 기괴미를, 퇴폐성은 Diamanda Galas, Lydia Lunch, Siouxsie Sioux 등의 고딕룩, 팜프파탈룩, 아이스퀸, 히스테리 환자룩 등을 통해 양성미, 기괴미, 퇴폐미를, 모순성은 Hole, L7, Luna Chicks, Babes in Toyland 등의 킨더홀룩, 탱크걸룩 등을 통해 관능미, 양성미, 기괴미 등으로 나타난다.

셋째, 3세계 페미니즘 여성성은 야생성과 혼성으로 나타난다. 야생성은 Tina Turner, Foxy Brown 등의 하이퍼섹시룩, 바디컨서스룩, 프리미티브룩 등을 통해 관능미, 양성미, 퇴폐미를, 혼성은 Salt-n-pepa, Queen Latifah 등의 아프로센틱룩, 프리미티브룩, 스포티브룩, 밀리터리룩, 오리엔탈룩, 힙합글램룩 등을 통해 관능미, 혼성미, 양성미 등으로 나타난다.

넷째, 사이버페미니즘 여성성은 Madonna, Bjork 등을 중심으로 가상성으로 나타난다. 테크노사이버룩, 사이보그룩, 뱀파이어룩, 인체 변형룩 등을 통해 관능미, 양성미, 기괴미, 탈인체미 등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퀴어 페미니즘 여성성은 Annie Lennox, Grace Jones 등을 중심으로 가장성으로 나타난다. 드랙, 부치, 팜프스타일, 페티쉬룩 등을 통해, 관능미, 양성미, 퇴폐미 등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걸 파워는 3세대 페미니즘의 다양한 인종, 계급, 섹슈얼리티를 대변하고 있으며, 걸 파워 의상에 표현된 여성성의 미적 특성은 관능미, 양성미, 기괴미, 혼성미, 탈인체미, 퇴폐미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3세대 페미니즘 여성성을 제시하는 걸 파워는 전통적 상징을 무시, 전복, 해체하는 미디어 문화의 3세대 페미니스트로서, 모호성, 아이러니, 유머를 이용하여 성적, 미적, 정치적 구성 범주들을 개방하고 전복하며, 정상/일탈, 흑인/백인, 남/녀, 정숙성/비정숙성, 이성애/비이성애, 고급패션/저급패션 등의 이항대립을 해체함으로써 나쁜 취향(bad taste)의 미적 주관성을 지향하였다.